

영화에 투영된 ‘남성 직장인 은퇴 후 삶’에 관한 일고찰*

- 日 『끝난 사람』과 美 『인턴』을 중심으로 -

김웅철**

jeanbok715@naver.com

안노 마사히데***

anno@smu.ac.kr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4.1 은퇴만족도와 사회인식 |
| 2. 연구배경과 선행연구 | 4.2 은퇴 후 재취업 |
| 3. 연구대상에 대하여 | 4.3 은퇴 후 사회참여 |
| 3.1 영화 『끝난 사람』 | 4.4 은퇴 후 연애관 |
| 3.2 영화 『인턴』 | 4.5 은퇴 후 부부관계 |
| 4. 연구 대상 분석 | 5. 나오며 |

主題語: 『끝난 사람(Life in Overtime)』, 『인턴(The Intern)』, 베이비부머(babyboomer), 은퇴(retire), 사회참여(participation in community), NPO(Non-Profit Organization)

1. 들어가며

본 연구는 남성 직장인들의 은퇴 후 삶을 주제로 한 일본 영화 『끝난 사람(Life in Overtime. 2018)』과 미국 영화 『인턴(The Intern. 2015)』을 대상으로 두 작품을 분석해 고찰한다. 고령사회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진행되고 있는 일본과 미국의 관련 영화에서 은퇴 이후의 남성 은퇴자의 삶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필자는 오랫동안 일본의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과 은퇴 후 삶 등에 대해 칼럼 기고와 저술 활동을 해왔다.¹⁾ 이 논문은 그러한

* 본 논문은 2020년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였음.

** 상명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 상명대학교 한일문화콘텐츠전공 교수, 교신저자

1) 제1저자인 필자는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 있는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페이퍼로드, 1997), 『연금 밖에 없었던 김부장은 어떻게 노후 걱정이 없어 졌을까』(부키, 2019)을 출간했고, 2011년 이후부터 미래에셋투자자와연금센터 등 관련 연구기관 등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연구 백그라운드를 기반으로, 두 편의 영화 텍스트에 남성 직장인의 퇴직 이후의 삶이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2020년을 전후해 국내 베이비붐 세대²⁾에 해당하는 남성 직장인의 은퇴 규모는 매년 약 9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피크를 맞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특히 직장인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후의 삶에 대해 질적, 양적연구를 통한 학술적 논의들을 진행해 왔다. 국내 언론들도 기획보도를 통해 관련한 다양한 담론을 사회에 던지고 있다. 하지만 베이비부머의 은퇴 이후의 삶이 정치, 경제,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비해 대중적 인식의 수준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중적 전달성이 높은 영화 매체를 분석의 매개로 삼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대중적 이해와 인식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한국 영화에는 남성 직장인의 은퇴 후 삶을 주제로 한 작품은 발견하기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 관련 내용을 주제로 한 영화 작품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국과 일본에서는 최근에도 관련 영화 콘텐츠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고,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다. 한 나라의 구성원의 삶은 해당 나라의 사회 제도, 문화 등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정 나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다른 나라에 기계적으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동안 관련 분야의 연구를 지속해온 필자의 견해로 볼 때, 이 논문의 연구 대상인 두 영화에서의 주인공이 겪는 은퇴 후 삶의 변화와 고민들은 국내 은퇴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물론 나라마다 사회분위기와 문화가 다르니 은퇴 이후의 삶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은퇴를 종료한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궤적이 상당히 흡사하다는 측면에서 일본 베이비붐 세대의 남성 직장인의 은퇴 후 삶을 다루는 것은 시사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한국 일본과는 문화가 다른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남성 직장인의 사례를 고찰하는 것도 서로 다른 은퇴 후 삶의 방식을 점검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영화의 범위는 최근의 것과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화를 선별했음을 밝혀 둔다. 두 영화가 던지는 은퇴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인식, 은퇴에 대한 개인들의 사회적 단절감, 일을 통한 지속적인 사회 참여 의지 등은 국내 베이비부머 남성 은퇴자들에게 일고찰의 의미를 전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2) 국내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증한 시점(1955년)에서부터 산아제한정책의 도입을 통해 눈에 띄게 출산율이 둔화되는 시점(1963)까지 9년의 기간 동안 출생한 세대를 지칭한다. 본 세대의 규모는 약 713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체 인구 중 비율로는 14.6%를 차지하고 있다. 방하남(2011) 「베이비붐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월간노동리뷰』(2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p.5-9

2. 연구배경과 선행연구

베이비붐 세대의 남성 직장인의 은퇴이후의 삶에 대한 국내 연구는 해당 분야가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라는 점 때문에 관련분야를 핵심 주제로 한 국내 영화의 출시는 찾아보기 힘들다. 관련 주제를 토대로 한 영화를 고찰하는 연구사례를 찾기 어려운 이유이다.

주제가 남성 직장인의 은퇴는 아니지만 1인 세대 증가, 가족붕괴 등의 사회적 현상을 주제로 현대의 가족이 겪는 이야기에 대한 영화의 비교 연구는 존재한다. 「영화에 투영된 “비혈연 및 패러사이트 싱글가족”의 한일 비교-‘고령화 가족’과 ‘어느 가족’을 중심으로」³⁾라는 연구 논문이 주목할 만 하다. 이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두 영화의 플롯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현대 가족의 미래 모습을 예단하고, 가족개념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영화의 고찰이 아닌 베이비붐 세대 남성 직장인의 은퇴 후 삶에 대한 문헌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어느 직업에서나 공식적 및 비공식적인 은퇴는 개인이 지금까지 수행해 온 지위와 역할의 상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새로운 역할관계가 그에게 부여되며 그 새로운 역할 관계의 성격과 내용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가족생활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은퇴는 산업화의 산물로서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 직위에 관련된 역할 수행을 중단하게 하고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도록 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성재 외, 2002).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성장을 이끈 중추적인 세대이며, 사회적으로는 부모세대의 봉양과 자식세대 부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며 민주화로의 급속한 변화를 책임져 왔다. 이들은 인생의 노년기를 제3의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은퇴 후를 위한 은퇴준비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나일주 외, 2008) 그러므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문제는 베이비붐 세대 개인의 문제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할 문제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들조차 몇몇 분야에 편중되어 있거나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을 파악하는 생활실태조사 정도가 주를 이룬다.(정경희 외, 2011, 한경혜 외, 2010)

반면 선진국의 경우에는 베이비붐 현상을 서구 세대 간 비교 연구가 풍부하게 진행되어 베이비붐 현상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

3) 니시야마 치나(2018) 「영화에 투영된 “비혈연 및 패러사이트 싱글가족”의 한일 비교-‘고령화 가족’과 ‘어느 가족’을 중심으로」『가족과 문화』제30집, 한국가족학회, pp.141-175

및 이들의 일상과 생애주기의 변화과정, 그리고 은퇴 후 노후생활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해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일본의 경우에도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연구가 198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 세대의 범위와 의미, 사회경제적 측면에 이들 세대의 은퇴가 미치는 파급효과 및 시장구매력을 갖춘 미래 시장의 주역 혹은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자원으로서의 의미 등에 대해 폭넓은 연구들이 있다.

한편 미국과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대규모 출생 코호트를 베이비부머로 정의한다. 미국의 경우 베이비부머를 1946년에서 1964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로 정의하고, 그 중에서 1946~1953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초기 베이비부머(EBB, early baby boomer)로 정의한다.(Leachm Philipson, Biggs, Money, 2008) 미국 베이비부머 인구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7000만 명)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2011년부터 매달 25만명 씩 은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덩어리라는 뜻의 ‘단카이(團塊) 세대’로 불리는 일본의 베이비부머는 1947년~1949년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출생한 약 700만 명의 인구 층을 지칭한다. 일본 전체인구의 5.4%를 차지한다. 일본 내각부가 발간하는 고령백서(2020년 기준)에 따르면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3589만 명으로 일본 전체인구에서 28.4%를 차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율⁵⁾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초고령사회⁶⁾로 진입했고, 단카이 세대는 2007년부터 일제히 정년을 맞았다. 베이비부머의 대량퇴직에 의한 노동력감소 문제, 퇴직금 지급이나 연금 지급 문제, 기업의 기술승계 문제, 퇴직자 대량이주에 대한 지자체의 움직임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오오야마 히데히사, 2007)⁷⁾ 이에 정부 및 지자체들은 단카이 세대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지역 데뷔’라는 이름으로 기획돼 시행되었다. 지역데뷔라는 용어는 베이비부머들이 현역시절 직장 주변에서 생활하다가 퇴직 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지역사회에 입문했다는 뜻에서 마스크에서 붙여졌다.

4) 오춘호(2017) 「미국·일본 베이비부머의 비애...성장 주역에서 ‘돈맥경화’ 주범으로」 『한국경제신문』 (2017.8.23.)

5)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6) WHO(세계보건기구)나 UN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1%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7) 2007년 문제-단카이세대의 퇴직을 둘러싸고(일본 국립도서관 ISSUE BRIEF NUMBER 561, 의회관청자료조사실, 2007.2.1.)

3. 연구 대상에 대하여

3.1 영화 『끝난 사람』

『끝난 사람』은 일본 베이비부머의 정년 이후 이야기라는 점에서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하고 있는 국내 베이비부머의 정년 이후에 삶에 대해 고찰해볼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 원작자 우치다테 마키코(内館 牧子)는 본인이 단카이 세대(베이비부머, 1948년 출생)로 환갑이 지나면서 동창회 등 동문들과의 모임이 늘었는데, 그 중에서도 퇴직한 남성 직장인들 이른바 ‘끝난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많은 발견이 있었다고 했다. 그 발견이 소설과 영화 속에 살아 있다. 우치다테는 실제로 이 작품을 「정년(定年) 소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보다 정확하게는 정년퇴직 후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⁸⁾

『끝난 사람』의 주인공은 도쿄대를 졸업한 엘리트층 직장인들로 출세 코스를 밟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은퇴 후에도 중소기업체 사장직을 맡을 정도의 인물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전형적인 샐러리맨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작자(원작 : 소설 ‘끝난 사람’)는 그렇게 정년퇴직 후에도 일하고 싶고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남성 직업인들의 소망을 구현하고, 일하고 싶어도 일하고 싶다고 말하기 어려운 일본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사는 정년 은퇴자들의 비애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로 주인공을 엘리트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 남성 직업인의 ‘전형’의 일종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실제로 원작자는 작품의 모티브를 직장에서 사내보(社内報)를 담당하면서 정년퇴직을 앞둔 사원을 대상으로 제2의 인생에 대해 취재에서 따왔다고 말하고 있다. 오랫동안 직장인들의 제2의 인생에 대한 고민과 은퇴 후 현실을 간접 체험한 후 쓴 작품이기에 샐러리맨들이 느끼는 공통적 고민이 녹아있다고 할 수 있다.

원작자 우치다테 마키코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직장인 퇴직자들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주인공 역은 도쿄대학 법대를 나온 엘리트입니다만, 도쿄대학 법대를 오든, 하버드 대학을 나오든, 중학교를 만족스럽게 가지 못한 사람이든, 끝난 65세의 착지점은 큰 차이가 없다.⁹⁾

8) 内館牧子(2016) 「定年後のエリートの悲哀を書いた『終わった人』が大ヒットした理由」『本』10月号, <https://gendai.ismedia.jp/articles/-/49790?imp=0>

9) 「Re 라이프.net」『아사히신문』(2021.3.12.), <https://www.asahi.com/relife/article/14256453>

영화 제작 연도는 2018년. 일본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 시기가 2007~2009년인 감안하면 그들이 10년 정도의 은퇴 생활을 한 시점이다. 일본 사회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정식(正視)하려는 시대적 배경에서 등장해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다. 『끝난 사람』의 대중성은 영화뿐만 아니라 라디오 드라마로 만들어진 것에도 확인된다. 도쿄의 라디오 방송국인 도쿄 (TOKYO) FM의 선데이 스페셜 라디오 드라마 『끝난 사람』이 2017년 3월 26일 전파를 뒀다.

『끝난 사람』은 엘리트 은행원의 정년퇴직 후와 그 부인을 그린 베스트셀러 영화이다. 줄거리는 주인공은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대형 은행에 입사해 승승장구하다가 임원 진급을 눈앞에 두고 출세 경쟁에서 낙오한다. 자회사로 좌천돼 정년퇴직한 주인공 다시로 소스케는 평생 회사에서 주어진 일만 하고 살아온 탓에, 은퇴 후 무한정으로 주어진 자유시간 앞에서 삶의 방향을 잃고 실의에 빠진다.

헬스클럽을 다니고 구직 활동에도 나서 보지만 공허감은 커져만 간다. 철없는 연애를 꿈꾸다가 가족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 우연히 기회를 얻어 IT 회사 대표로서 직장인으로서 다시 야망을 불태우지만 회사 도산으로 빛을 지는 등 순탄치 않은 은퇴 생활을 겪는다. 결국 부인과 별거, 낙향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간다.



<사진1> 『끝난 사람(LIFE IN OVERTIME. 2018년)』 영화 포스터.(왼쪽 *출처: 센트럴 아트 www.owattahito.jp/) 『인턴(The Intern. 2015년)』 영화 포스터. (*출처: 워너브라더스 . www.warnerbros.com/movies/intern)

원작 동명의 소설을 쓴 우치다테 작가는 영화개봉을 앞두고 아사히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일류 고교와 대학을 나온 사람이나 중학교만 졸업하고 사회에서 취직한 사람이나 종착점은 큰 차이가 없다. 은퇴자 중에서 가장 좋지 않는 사례는 (자신 이) 끝났는데도 ‘(나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¹⁰⁾

60대는 대부분 몸도 마음도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가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만족된 삶을 살 수가 없다. 이걸 개인이 노력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젊은이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¹¹⁾

며 연령으로 정해지는 정년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산케이 신문은 평론을 통해 ‘일 밖에 모르던 회사원이 정년과 동시에 ‘끝난 사람’이 되어버리는 영화가 화제다. 그런 사람을 줄이는 것도 국가 성장전략의 하나이지 않을까’라며 고령자 고용의 높은 사회적 벽을 꼬집었다.¹²⁾

교토신문은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정년을 맞은 남자가 방황하며, 조급해하는 모습을 코미디로 그린 영화다. 현역의 미련에 사로잡히지 말고 백지의 기분으로 한발 내딛을 수 있도록 응원을 보낸다.¹³⁾

우치다테는 이처럼 베이비붐 세대의 도전적인 은퇴 후 삶을 응원하기도 했다.

3.2 영화 『인턴』

영화 『인턴』은 2015년 작품이다. 영화 『끝난 사람』처럼 베이비붐 세대의 선두 그룹이 은퇴한 후 10여년이 흐른 시기로,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참여와 역할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커지는 때라는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다.

10) 『아사히신문』(2017), 앞의 기사 <https://www.asahi.com/relife/article/11250443>

11) 『아사히신문』(2017), 앞의 기사 <https://www.asahi.com/relife/article/11250443>

12) 「고령자가 일하기 쉬운 환경조성을」 『산케이 정론』(2018.7.1.)

13) 「정년 후 긴 인생」 『교토신문』(2018.6.4.)

영화 『인턴』은 성공신화를 이룬 패션기업 CEO 줄스 오스틴(앤 해서웨이 분)이 40년 직장생활에서의 노하우와 풍부한 인생경험을 가진 70세의 벤 휘테커(로버트 드니로 분)를 시니어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코미디 형식으로 풀어냈다. 전화번호부 회사 부사장으로 퇴임한 주인공 벤은 자신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니어 인턴 프로그램에 지원한다. CEO 줄스는 처음에는 고령의 직원에게 회의적이었지만 점차 벤의 연륜과 노하우들에 신뢰를 느끼면서 인생 멘토로서 존경하게 된다. 벤은 또 회사의 안마사인 동년배 여성과도 우정과 사랑을 나누면서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난다. 영화는 말미에 ‘경험은 결코 늙지 않는다. 경험은 절대 시대에 뒤지는 게 아니다(Experience never gets old. Experience never goes out of fashion)’며 장년층의 사회적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끝난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턴』의 주인공도 회사에 40년 근무한 직업인으로 정년 후 일하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지 못하고 시니어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미국 남성 직업인의 전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정년 후에 다시 한 번 일하고 싶다,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은 결코 특수한 예가 아니라 미, 일의 차이를 넘어서 두 영화의 공통된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홍세연은 「영화 ‘인턴’의 시니어 멘토가 보여준 미래」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평했다.

한 기업의 CEO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인턴인 여자 주인공과, 기업에서 역할은 인턴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노련한 시니어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다룬다. 14)

홍세연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도 이런 장면을 볼 날이 머지않았다’면서 고령 인구를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복지서비스, 교육훈련, 주택정책 등의 다양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하나는 ‘70세 노인의 인턴 취업기가 우울했던 나에게 내린 극약처방’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평했다.

영화 속 벤은 일흔이라는 나이를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경험은 늙지 않는 것이라 확신하며,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곱게 접은 손수건을 늘 가슴 속에 품고 다닌다.15)

14) 홍세연(2019.11.14) 「영화 『인턴』의 시니어 멘토가 보여준 미래」『문화저널21』,
<http://www.mhj21.com/1256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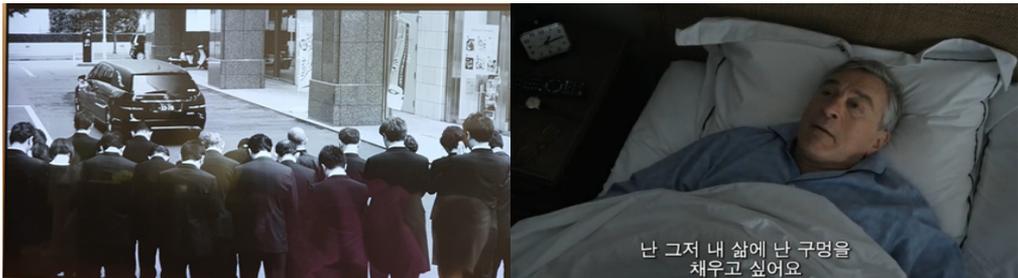
15) 조하나(2020.9.14.) 「70세 노인의 인턴 취업기가 나에게 내린 극약처방」오마이뉴스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675353&CMPT_CD=P0010

조하나는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 줄 이는 ‘어려운 어른’으로 늙어 가는 것’이 이제 내 노년의 새로운 ‘로망’이다’고 평했다. 최하늘은 ‘로버트 드니로(벤 분)와 끈대의 갈림길 한쪽에는 ‘공감’과 ‘경청’이 자리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공감성과 유연성이 부족한 중장년 관리직들을 꼬집기도 했다.¹⁶⁾

4. 연구 대상 분석

4.1 은퇴 만족도와 사회 인식 : 정년퇴직은 ‘생전장’(生前葬)

『끝난 사람』은 영화 제목부터가 은퇴에 대한 강렬한 부정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회사가 인생의 전부인양 살아온 이른바 ‘회사 인간’이 회사를 떠났으니 그의 인생도 끝난 것이 아니냐는 메시지다. 주인공 다시로 소스케는 “정년퇴직, 이걸 뭐 ‘생전 장례식’이다”라는 독백으로 정년퇴직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자극적으로 드러낸다. 다시로가 ‘성대한’ 정년퇴직 행사를 치른 후 회사 관용차로 자택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영화는 회사 관용차를 ‘장례차량’으로, 회사 동료 선후배들을 ‘장례식 문상객’으로 오버랩 시킨다.



<사진 2> 영화 『끝난 사람』에서 정년퇴직 기념식 후 떠나는 장면을 장례식 장면으로 표현하는 장면(왼쪽. *출처: 센트럴 아트 www.owattahito.jp/)과 영화 벤에서 직장 퇴직 후 홀로 해외여행을 한 후 텅 빈 집에 돌아와 고독감과 상실감을 느끼는 주인공 벤의 모습(*출처: 워너브라더스 www.warnerbros.com/movies/intern)

&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16) 최하늘(2018.7.31.) 「영화 『인턴』속 로버트 드니로와 ‘끈대’의 차이점은」 『오피니언타임즈』, <http://www.opinio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73>

일본에서는 ‘은퇴=퇴장+휴식’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가족들과의 은퇴기념 파티에서 부인을 비롯한 가족들의 덕담은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앞으로는 편히 쉬세요”로 귀결된다. 하지만 매일 갈 곳(회사)과 주어진 일이 없어짐으로써 겪어야 하는 무료함과 상실감이 주인공을 괴롭힌다. 아침부터 보는 TV에 금세 실증을 느끼는 장면이거나, 오전에 거리에 나가 출근하는 회사원들을 부럽게 바라보는 장면 등에서 은퇴 주인공의 심적 갈등이 묘사된다. ‘사람에게 가장 큰 불행은 할 일 없는 날이 계속된다는 거다’라고 다시로는 괴로워한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기 일을 가지고 있는 부인과 자녀, 가족들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대비하면서 자기 효능감이 저하되는 모습으로 은퇴과정이 그려진다.

정년퇴직에 부정적인 인식은 연구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가 정년퇴직 전후의 남녀를 대상으로 퇴직 전후 의식변화를 물었는데, 응답자의 70%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50대 후반의 남자가 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¹⁷⁾ 영화의 주인공은 정년퇴직하고 이 조사 결과에 나타난 것과 같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현실 생활 속에서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인턴』도 영화 서두에서 정년퇴직이 직장인에게 던져주는 상실감을 강조한다. 주인공 벤도 정기적인 갈 곳(직장)의 상실로 느끼는 공허함과 무료함을 느끼는 장면은 『끝난 사람』의 주인공 다시로의 모습과 오버랩 된다. 긴 여행에서 집으로 돌아온 벤은 “(집에) 굳이 돌아올 필요가 있는 것일까”라는 독백으로 은퇴 후 공허함을 토로한 장면은 보는 관객을 안쓰럽게 한다.

하지만 『인턴』은 『끝난 사람』처럼 정년퇴직을 통째로 부정하기 보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그려진다. 은퇴가 워매인 조직과 일에서의 해방을 느끼는 과정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주인공 벤은 은퇴 후 이웃들과 공원에서 태극권 등 취미활동을 즐기거나 자유롭게 세계여행을 하는 등 은퇴를 여유로운 삶으로 긍정적으로 그린다.

미국 은퇴자의 은퇴 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미국 은퇴자들의 약 90%가 은퇴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일본처럼 직장인들의 회사에 대한 정신적 의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직업관의 차이도 은퇴 생활에 대한 만족감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보인다. 영화에서도 『인턴』에는 정년 퇴직자에 대한 부정적 묘사가 『끝난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정년 후 삶에서도 주인공 벤의 외로움이 느껴지는 대목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밝은 톤으로 그려져 있다.

17) 的場康子(2018) 「定年退職前後の生活の変化」『Life Design Report Spring』第一經濟生命經濟研究所, pp.29-31

4.2 은퇴 후 재취업 : CEO와 인턴사원

두 영화가 오랜 직장 생활에서 은퇴한 샐러리맨의 이야기를 다루다보니, 은퇴 샐러리맨이 느끼는 ‘직장’에 대한 동경은 공통적으로 강렬하게 묘사된다. 은퇴 후 다시 일자리를 얻고 그 직장에서 제 역할을 했을 때 주인공과 주변에서 느끼는 강렬한 충만감이 일없음의 고통을 역설적으로 토로한다.

스타트업 기업의 고문을 맡은 『끝난 사람』의 주인공 다시로는 자신의 전문분야인 재무업무에서 큰 역할을 해내며 생전(生前)으로 환생할 정도의 강렬한 고양감(高揚感)을 느낀다. 특히 정년퇴직한 직장에서 기대했던 임원이 되지 못했던 ‘불완전 연소(燃焼)’를 스타트업 기업에서의 역할로 ‘완전 연소’하려는 주인공의 모습에서 직장이 그에게 주었던 생명감을 느끼게 된다.



<사진 3> IT기업에 고문으로 재취직, 새로운 인생2막의 길을 걷기 시작한 주인공 다시로의 모습에 생기가 넘쳐난다(왼쪽. *출처: 센트럴 아트. www.owattahito.jp/) 영화 『인턴』 주인공 벤도 시니어인턴으로 재취업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는다.(*출처: 워너 브라더스. www.warnerbros.com/movies/intern)

본인뿐만 아니라 다시로의 부인도 양복을 차려입고 퇴근하는 남편의 모습에서 은퇴 전의 생기를 느끼며 기뻐한다. ‘인턴’이라는 단기간 비정규직 일자리지만 양복을 차려입고 다시 출근한 새로운 직장에서 『인턴』 주인공 벤이 느끼는 감회는 다시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 느낌으로 묘사된다. 처음으로 일거리가 주어지자 벤이 주먹으로 책상을 치는 장면은 자신의 역할을 되찾은 기쁨을 여과 없이 전해준다. 30대 CEO의 비서로서 역할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주인공 벤은 오랜 회사생활 경험을 토대로 업무 이외에 CEO가 느끼는 고민을 함께 해결해주는 인생 멘토로서의 역할을 통해 자신의 효능감을 되찾는다.

30~40년간 한 직장에서 회사인간으로서 지내왔던 그들에게 직장, 일거리는 생명 줄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임을 두 영화 주인공은 몸으로 웅변한다. 미국 퇴직자들의 일에 대한 갈망은 고령자 고용 현황에서도 뚜렷이 확인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¹⁸⁾(김경선, 2017)에 따르면 미국 고용 현황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5세에서 64세, 65세에서 74세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990년부터 2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이후 2020년까지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심지어 7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도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고 있고, 2020년에는 7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6세 이상 24세 이하 인구의 경우 1990년 67.3%에 달하던 경제활동참가율이 2020년에는 48.2%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데 반해 55세에서 64세 이하는 1990년 55.9%이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0년 64.9%까지 증가했고 2020년에는 68.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65세에서 74세까지의 연령대도 1990년 16.7%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 25.7%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31.0%까지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미국보다 고령자 취업률이 더 높다.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60~64세의 취업률은 70.3%, 65~69세의 취업률은 48.4%, 70세 이상의 취업률은 17.2%로 다소의 증감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85% 가까운 고령자가 65세까지는 일하고 싶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그 중, 일할 수 있을 때까지가 20.6%, 80세 정도까지가 4.8%, 75세 정도까지가 11.9%, 70세 정도까지가 21.7%, 65세 정도까지가 25.6%로, 고령자의 노동의 욕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정년연령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고령자의 일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고 있는데, 올해 4월 고령자고용안정법이 개정돼 ‘의욕 있는 고령자보다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70세까지의 고령자 취업확보 조치를 강구하도록 기업에 의무화했다.

일본의 고령자 취업률이 높은 이유로는 미국에 비해 일본 직장인들의 회사에 대한 정신적 의존도가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직업관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생각한다. 영화에서도 『인턴』에는 정년 퇴직자에 대한 부정적 묘사가 『끝난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정년 후 삶에서도 주인공 벤의 외로움이 느껴지는 대목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밝은 톤으로 그려져 있는 대목이 그렇다.

두 영화의 주인공 모두 일에 대한 열정은 높지만 일을 통해 추구하고자하는 목표에서 미묘한 차이점을 엿볼 수 있다. 『끝난 사람』의 다시로는 회사 사장직을 맡아달라는 직원들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부인 치구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가로서 재기해 보겠다는 야심을

18) 김경선(2017) 『미국의 고령자 고용정책 주요 현안과 정책 대응』 한국노동연구원, pp.120-125

펼친다. 현역시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을 은퇴 후 제2의 도전을 통해 해소하려는 주인공의 욕구가 고스란히 전달된다. 결국 해당 회사가 부도가 나 다시로는 퇴직금을 회사 부채 반환에 탕진하게 되고 부인과의 관계도 파탄으로 치닫는다.

『인턴』의 주인공 벤은 과거 전화번호부 관련 회사에서 부사장까지 지냈지만, 시니어 인턴사원으로 재취업한 이후의 역할은 보조와 멘토 역할의 선에 머무른다. 인턴 회사의 사장 줄스의 비서 역할을 맡는 그는 전문경영인 도입에 대한 결정이라는 회사의 중대 결정과 줄스의 남편의 외도로 인한 가정 위기 상황에서 비서로서의 멘토와 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퇴직 후의 일은 사회 참여를 통한 만족의 수준에 그치고, 현역시절 미완성에 대한 미련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은 두 영화 주인공의 일에 대한 인식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영화 주인공의 은퇴 후 재취업 분야에 대한 차이점으로 두 나라 은퇴자들의 일에 대한 전형을 제시할 수는 없다. 다만 은퇴 후 재취업을 통해 은퇴자들 추구하려는 삶의 태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는 있을 것 같다.

4.3 은퇴 후 사회 참여 : 지역사회 NPO 활동

은퇴 후에도 지역사회에서의 봉사활동 등 적극적인 사회 참여는 노후 만족도를 높이는 작용을 한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있다. 『끝난 사람』에서는 주인공 다시로 친구들이 은퇴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와 소통하면서 제2의 인생을 펼치고 있는 장면들을 보여준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고교동창은 제2의 삶을 복싱 심판으로 살고 있다. 국제복싱 심판이 되는 게 꿈이라며 열정적인 은퇴 이후의 삶을 이어간다. 해당 친구도 다시로처럼 한때 대기업에서 승진을 목표로 일하던 직장인이었지만 어느 날 직장에서의 삶을 접고, 자신이 좋아하던 복싱의 세계에 들어선 것이다. 주인공 다시로는 복싱 대회에서 심판으로 활약하는 친구의 활기찬 모습에 부러움을 느끼며 많은 생각에 잠긴다.

『끝난 사람』에서 은퇴 후 사회참여 방법으로 주목할 만한 것이 NPO 활동이다. 사업가로서 도전에 실패하고 낙향하는 주인공 다시로를 고교 친구들이 따뜻하게 맞아 주는 데, 그 중에 다시로의 마음을 움직였던 친구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NPO 대표였다. 다시로는 친구의 NPO 일을 도우면서 고향에서 제2의 인생을 보낸다.

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해 건강한 일본의 은퇴자들의 주요한 사회참여 수단 가운데 하나가 NPO에서의 활동이다. NPO란 「Non-Profit Organization」의 약칭으로, 단체의 설립 목적이 수익보다 사회공헌 활동에 있다. 하지만 100% 무보수인 자원봉사와 달리 인건비 등 일정의 보수를 받지만 생계를 위한 돈벌이보다는 사회에 봉사하며 약간의 수익을 얻는 일에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이 NPO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 현재 일본에서는 약 5만개의 NPO법인이 활동 중이다.

『인턴』에서 NPO의 활동은 등장하지는 않지만 NPO의 본류는 미국이다. 미국에서는 NPO에서 일하는 사람도 취업인구에 포함시킨다. NPO활동으로 일정 보수를 받기 때문이다. 현재 전체 취업인구의 10%가 NPO에서 일하고 있으며, 미국 전역에서 활동하는 NPO 수만 200만 개에 이른다. NPO에는 현역 젊은이들보다 은퇴자들의 참여가 높다. 일본의 NPO법인 대표의 연령대를 보면 70대 이상이 가장 많고, 60대 이상이 전체의 70%를 차지한다.¹⁹⁾ 은퇴자 입장에서는 NPO를 통해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다. 생계를 위한 돈벌이보다는 사회에 봉사하며 약간의 수익을 얻는 일에 관심 있는 은퇴자들이 NPO를 찾는다. NPO 입장에서는 전문 경력을 갖춘 은퇴자가 반가운 손님이다. ‘필요로 하는 인재’와 ‘부족한 인건비’ 사이의 격차를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턴』의 경우 주인공 벤의 ‘여친’이자 벤이 다니는 회사의 전속 안마사로 일하는 고령의 여성은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베이비부머가 추구할 평생현역의 사례로 그려지고 있다.

4.4 연애 : 일탈과 사랑 사이

일본의 은퇴를 둘러싼 작품, 소설 영화 등에서 빠지지 않은 테마가 ‘새로운 사랑’이다. 은퇴 후 공허함은 새로운 환경에서 만나는 이성과의 연애 감정에 쉽게 빠져들게 한다. 그 감정의 강도에 따라 불장난이 되기도 하고 파탄을 낳기도 한다. ‘실낙원’으로 유명한 소설가 와타나베 준이치(渡辺淳一)는 76세의 나이에 발표한 『고주(孤舟)』²⁰⁾에서 허함을 달래려는 은퇴자의 젊은 여성과의 불장난 사랑을 그려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일본의 소설과 영화 속 은퇴 후 사랑은 결국 ‘실패’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끝난 사람』의 주인공 다시로도 대학원 준비를 위해 찾아가던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동화작가 꿈꾸는 접수원 구리에게 마음을 빼앗긴다. 35세 여성과 사랑을 한다며 딸에게 자랑하는 다시로 구리와 우연한 만남으로 가장하기 위해 선글라스까지 끼고 전시회를 찾기도 하고, 출장을 간 곳으로 구리를 부르고 찾아온 구리에게 욕망의 꿈을 꾸기도 한다.

‘외도’의 문턱까지 가지만 다시로는 사랑에서도 좌절을 경험한다. 은퇴 연애의 좌절감은

19) 일본 내각부(2021) 「내각부 NPO통계」 <https://www.npo-homepage.go.jp/>

20) 渡辺淳一(2013) 『孤舟』集英社. ‘실낙원’으로 유명한 연애소설의 대가 와타나베 준이치가 76세에 발표한 소설로 10만부가 넘게 판매된 베스트셀러이다. 정년퇴직 후 일을 잃어버린 허무함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의 삶을 그렸다.

사랑을 쟁취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넘어, 실패의 원인이 은퇴와 연결된 자신의 효능감의 상실로 이어지면서 스스로를 괴롭힌다.

원작자 우치다테 마키코는 현지 언론에 쓴 소감에서 연애 이야기를 삽입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진 4> 퇴직 후 백화점 문화센터의 젊은 접수직원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연애감정에 빠진 『끝난 사람』의 주인공 다시로(왼쪽. *출처: 센트럴 아트. www.owattahito.jp/) 사별한 주인공 벤텐은 새 여자 친구인 또래의 미인 안마사와 중년의 로맨스를 즐긴다 (*출처: 워너브라더스. www.warnerbros.com/movies/intern)

당초 이야기에 연애를 넣을 마음이 없었지만 소설이나 영화로 그려지는 중장년의 격렬한 사랑, 파멸적 사랑 등 불륜과는 다른 냉정하고 현실적인 사랑 이야기를 그리려 했다. 그것은 ‘직업도 없고, 돈도 없고, 갖고 있는 것은 시간 밖에 없는 은퇴한 직장인 남성의 구애에 응할 여자는 거의 없다’는 60대 남자의 리얼한 현실 사랑이었다고²¹⁾

이 ‘혹독한 현실’의 사랑 이야기야 말로 60대 은퇴 남자를 묘사하는 큰 포인트가 됐다. 60대 은퇴 남은 스스로는 시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적으로는 시들어버린 세대의 범주에 포함되기 쉽다. 그런 상황에서 여자가 나타나면 ‘아직도 연애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친다. 그러면서 여자가 배신하면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라고 반격을 가할 기운도 남아있다. 60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연애 이야기²²⁾

라며 비록 현실의 냉정함에 직면하지만 남성 직장인들이 은퇴 후 삶에 있어서 ‘연애 이야기’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21) 内館牧子(2016) 앞의 기사, <https://gendai.ismedia.jp/articles/-/49790?page=2>

22) 内館牧子(2016) 앞의 기사, <https://gendai.ismedia.jp/articles/-/49790?page=2>

연애에 대해 자유로운 미국의 경우는 은퇴 연애는 젊은 여성과의 현실 도피성, 일시적 연애보다는 동년배와의 새로운 교제의 형식으로 그려진다. 『인턴』의 주인공 벤은 새로운 직장에서 만난 안마치료사 여성과 교제하면서 강한 유대감을 느낀다. 물론 벤이 상처(喪妻)했다는 설정 때문에 두 영화의 주인공의 은퇴 연애의 비교가 직접적이지 못한 측면은 있지만 이성 교제에 대해 일본보다 개방적인 미국 은퇴남의 은퇴 후 사랑을 대하는 모습의 일단을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불륜이 아니더라도 고령자의 연애는 ‘나이 값도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나이든 사람들의 사랑에는 수치심이 동반하는 인식이 강하다. 반면 벤과 안마치료사 여성의 사랑은 미국적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연애풀토를 느끼게 한다.

4.5 은퇴 후 부부 관계 : 졸혼(卒婚)의 등장

직장인 퇴직자들은 은퇴한 후 다양한 인간관계의 변화에 직면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이고 큰 변화가 부부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끝난 사람』에서도 주인공 다시로와 부인 치구사의 관계는 다시로의 현역 시절과는 정반대의 관계가 형성된다. 퇴직으로 출근이 없어진 다시로는 매일 아침 갈 곳이 없어 집 소파에 파묻혀 TV나 시청하는 반면, 자기 일(미용사)을 갖고 있는 부인 치구사는 매일 출근 준비에 바쁘다. 영화는 한가로운 다시로와 바쁜 치구사를 대비시켜 은퇴 후 역전되는 부부관계를 클로즈업한다. 일하고 있는 부인 치구사를 불러내 벚꽃 구경을 하면서 “인생은 어차피 벚꽃처럼 진다”는 등의 감상을 이야기 하자 치구사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장면이나, 퇴직 후 입에 불만을 달고 사는 남편 다시로에게 아침밥을 챙겨주면서 “좀 적당히 하고 정신 차려라”고 핀잔을 주는 장면이 은퇴 후 역전되는 부부간의 관계를 강렬하게 그려낸다.

영화 『끝난 사람』에서는 긴 노후의 부부관계에서 ‘졸혼(卒婚)’이라는 용어가 등장해 새로운 노후 부부관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인턴』의 경우는 아내와의 사별이며, 엄밀하게는 ‘졸혼’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이장에서는 『끝난 사람』을 중심으로 논한다.

은퇴 후 취업한 회사의 도산으로 다액의 부채를 진 남편 다시로 때문에, 미용실 개업이라는 자신의 절실한 꿈이 산산조각난 부인 치구사는 손님으로부터 ‘요즘 나이든 부부들은 졸혼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사진5> 퇴직 후 각자의 독립된 삶의 중요성을 깨닫고 ‘졸혼’이라는 선택에 고민하는 주인공 다시로 부부.(왼쪽. *출처: 센트럴아트 www.owattahito.jp) 영화 인턴의 주인공 벤은 여자 친구와 친구관계를 유지하며 동시에 지역 주민들과의 커뮤니티에 참여하면서 노후 인간관계를 만들어간다.(*출처: 워너브라더스 www.warnerbros.com/movies/intern)

졸혼이란 ‘결혼을 졸업한다’는 신조어로, 혼인 관계는 그대로 유지한 채, 남편과 아내로서의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 각자의 여생을 자유롭게 사는 것을 뜻한다. 나이 든 부부가 이혼하지 않으면서도 각자 자신의 여생을 자유롭게 살며 즐기기 위해 등장한 신풍속이다. 결혼의 의무에서는 벗어나지만, 부부 관계는 유지한다는 점에서 이혼, 별거와는 차이가 있다. 2004년 작가 스기야마 유미코(杉山由美子)가 『졸혼을 권함(卒婚のススメ)』이란 책에서 처음 사용했다.²³⁾ 이후 일본 결혼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요즈음에 와서 연예인 부부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0년 이후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고령의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는 이른바 ‘황혼(黃昏) 이혼’이 급증해 사회문제가 되었다. 특히 배우자의 정년퇴직 때까지 참고 기다리다, 퇴직 시 퇴직금을 분할 받고 이혼을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최근에는 황혼이혼을 예방하고 부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졸혼이 주목받고 있다. 황혼이혼은 법정 다툼 끝에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지만 졸혼은 결혼 상태는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23) 네이버 지식백과 ‘졸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82224&cid=43667&categoryId=43667>

5. 나가며

『끝난 사람』과 『인턴』은 정년퇴직한 남성 직장인이 제2의 인생을 찾아가는 여정의 스토리이다. ‘당신은 끝났습니까?’라고 물으며 시작한 『끝난 사람』은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라고 대답한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 현역 시절보다 더 마음 따뜻한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해준다. 정식 직원이 아닌 ‘인턴’이라는 역할로 다시 사회와 관계를 이어가는 스토리의 『인턴』 영화도 ‘인턴’이 불완전한 직장인이 아닌 젊은 직원들보다 더 숙련되고 세련되게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희망적으로 보여준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요즘의 사회를 100세 시대로 부른다. 60세 정년이라는 과거의 제도가 지금의 사회에 부합하는 지, 사회와의 끝을 연령으로 끊어 버리는 것이 100세 시대의 사회에 얼마나 이질적인 것인지 두 영화는 웅변해 주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18년 고령화율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00년 초반부터 매해 9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퇴직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정보원은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2021년을 기점으로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이 여전히 일할 의사가 있다는 점이다. 고용정보원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고학력, 고숙련 베이비붐 세대를 노동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중고령층 일자리의 질적 수준 개선 및 노동과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윤정혜, 2019²⁴)

퇴직하는 베이비붐 세대 직장인들은 과거 ‘선배 퇴직자’들에 비해 건강하고, 풍부한 사회적 경험과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런 특징의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에게 ‘60세 정년퇴직’은 강제적 사회적 단절과 함께 극적인 일상의 변화를 초래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한국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의 관련 영화와 장년층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인식이 한국보다 앞서 있는 미국의 영화를 각각 선정해, 두 영화에 투영된 남성 직장인의 은퇴 후 삶에 대한 일고찰은 국내 중장년층의 퇴직 후 삶에 대한 벤치마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고령화를 연구해온 필자의 경력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턴보다 끝난 사람에 대한 언급이 많아졌지만 정년 후의 삶이라는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떻게 영화에 그려지는지를 동시에 시야에 넣는 것이 헛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두 영화의 공통점으로 코미디적 요소가 있는데, ‘은퇴 후의 삶’이나 ‘늙음’이라는 심각한

24) 윤정혜(2019) 「베이비부머 은퇴와 재취업 현황분석-고령화연구패널을 이용하여」 고용정보원 고용조사 브리프

고 부정적으로 비칠 수 문제들을 슬픔과 함께 웃음의 힘으로 대중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표현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쉬운 점은 한국 영화와의 비교가 실현되지 못한 점이다. 한국도 베이비부모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장년층의 은퇴 후 삶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고령화 대책보다는 저출산 대책이 우선이고, 고령화 테마 자체도 복지라는 시혜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직장인들의 은퇴 후 삶에 대한 다양한 모델 제시 등의 영화 콘텐츠가 부실하다는 점을 변명으로 삼으려 한다.

【참고문헌】

김미혜·전순돌·박현주(2014) 「베이비부머의 신체적 건강 및 심리 사회학적 특성: 한국, 미국, 영국 고령화패널 비교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16권 제2호, 한국자료분석학회, pp.987-1005

방하남(2011) 「베이비붐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월간노동리뷰』(2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p.5-9

변루나·김영숙·현택수(2011) 「베이비붐 세대 은퇴후 사회참여 지원정책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보건사회연구』31호(4), pp.315-344

신현구(2007) 「노동시장 은퇴자의 은퇴 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pp.81-93

오춘호(2017) 「미국·일본 베이비부머의 비애...성장 주역에서 ‘돈맥경화’ 주범으로」 『한국경제신문』(2017.8.2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7082298901>

호사카 타카시(2014) 『아직도 상사인줄 아는 남편 그런 꼴 못 보는 아내』 매경출판, pp.17-65

内館牧子(2017) 「内館牧子さん / 定年後はすてきな「終わった人」に」 인터뷰・作家内館牧子さん 『朝日新聞』(2017.12.19) : <https://www.asahi.com/relife/article/11250443>

内館牧子(2016) 「定年後のエリートの悲哀を書いた『終わった人』が大ヒットした理由」 『本』 10月号 <https://gendai.ismedia.jp/articles/-/49790?imp=0>

佐藤眞一(2006) 「団塊世代の退職と生きがい」 『日本労働研究雑誌』48(5), pp.83-93

的場康子(2018) 「定年退職前後の生活の変化」 『Life Design Report Spring』 第一経済生命経済研究所, pp.29-31

渡辺淳一(2013) 『孤舟』 集英社

논문투고일 : 2021년 12월 17일
 심사개시일 : 2022년 01월 16일
 1차 수정일 : 2022년 02월 08일
 2차 수정일 : 2022년 02월 16일
 게재확정일 : 2022년 02월 22일

<要旨>

영화에 투영된 ‘남성 직장인 은퇴 후 삶’의 일고찰

- 日 『끝난 사람』과 美 『인턴』을 중심으로 -

김용철 · 안노 마사히데

본 연구는 국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베이비부머가 은퇴를 전후해 마주하게 될 환경 변화를 짚어봄으로써 은퇴 이후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 오랜 직장 생활을 했던 양국의 베이비부머들은 대부분 정년퇴직(은퇴) 후 사회적 상실감에 고뇌하고 있으며, 특히 ‘회사 인간’으로 불릴 정도로 조직생활에 충실했던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들은 은퇴를 ‘생전 장례식’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영화는 그러면서 주인공들이 기업의 고문과 시니어인턴으로 재취업을 한 후 개인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도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은퇴 이후의 베이비부머의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영화는 은퇴 이후의 변화로 일을 통한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와의 관계, 이성과의 관계의 어려움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부부와의 관계에서는 사회적 활동성에서 역전되는 모습과 함께 부부 각자의 독립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졸혼’이라는 새로운 결혼 풍속도를 제시하면서 새로운 부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의제를 던졌다. 두 영화는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에게 연령을 기준으로 한 경제적 사회적 단절은 극단적인 일상의 변화를 초래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을 말해준다. 동시에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은 과거 세대와 달리 고령친화적 일자리와 새로운 부부관계 등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고령자 문화를 창출해 갈 수 있음을 두 영화는 보여주고 있다.

A study of “Life After Retirement as a Male Office Worker”

 - Focusing on the Japanese movie 『Life in overtime』
and the American movie 『The Intern』 -

Kim, Woong-chull · Masahide, Arno

As the domestic baby-boomer generation has started to enter the retirement phase, this study explores and outlines the emergence of a new type of post-retirement lifestyle, by examining the environmental changes that baby-boomers will face before and after retirement. A majority of individuals from the baby-boomer generation who have worked for a long time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suffer from a sense of social loss after retirement. This is prevalent especially among Japanese baby boomers, who had a work culture that required loyalty and faithfulness to their respective organisations, so much to an extent to be even called as the so-called ‘company humans’. It appears that this generation cohort is undergoing a significant mental and psychological impact - this is apparent by the way they reconcile retirement as a ‘funeral before death’. The two films emphasize the importance and meaning of re-employment post-retirement, either as a corporate advisor or a senior intern, by showing the contribution a ‘career’ or ‘job’ has to reviving not only their own sense of self, but also for their families. The two film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not only social or colleague relationships, but also relationships concerned between partners and marital relationships, as effects of post-retirement. A particularly pronounced change in marital relationship is the notion of reversed social roles alongside the pursuit of independence in couples, which is coined as a separate term as ‘Jolhon’, which means ‘graduation from marriage’. The two films pose opportunities for baby-boomer retirees to create a new kind of culture and post-retirement life style by forming senior-friendly jobs and new marital relationships, which is unique from previous generations.